

'00 秋季學術大會 開會辭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장 권태영

2000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천년기와 새로운 백년기를 여는 해이며,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임과 동시에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태동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방에는 수많은 과제가 제기된 「도전과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2000년의 가을이 우리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정보화의 사령탑을 맡아오신 남궁 석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군과 학회가 공동으로 「21C를 지향한 국방지식 경영」이란 주제 하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기 모시신 모든 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2개축의 대 변환을 예의 주시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도전을 전략적인 기회로 삼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 변환의 한 축인 남·북 관계가 화해·협력, 공존, 그리고 통일 구도로 발전되어가고, 다른 한 축인 전쟁패러다임이 정보·지식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우리 군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는 우리 군의 기본 모습을 근원적으로 재정비하고, 혁신할 것을 요구하는 중대한 명제로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적 없는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기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남·북 관계의 순 기능적 변화를 튼튼한 군사력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화해와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표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비통제의 문제, 작전 지휘권의 문제, 주한 미군의 역할 및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의 군사비 축소 압력 속에서 군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 등을 매우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군은 제반 상황 및 여건이 모두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은 임무, 즉,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둘째, 전쟁 패러다임이 「디지털·네트워크」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주요 선진국이 모두 새로운 미래전(정보전, 미사일전, 우주전, 로켓전등)을 경쟁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변화의 파고를 타지 않을 경우 구 한말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재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우리에게 적합한 바람직한 「정보·기술군」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하고, 전쟁수행 방법과 수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며, 제한된 경제·기술 능력을 감안하여 그 실현 방안을 지혜롭게 강구·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중대한 과업을 상호 밀접히 연계, 결합하여 전략 환경변화의 주요 단계별로 우리 군의 전력 및 병력수준, 부대구조, 작전운영, 부대배치, 인력개발, 운영 관리등을 조직적으로 최적화 합니다. 특히 사회의 디지털 혁명과 기업경영기술(Best Practice)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 군을 정보화·과학화·정예화·선진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중요한 군의 과업을 군이 폐쇄회로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 소요로 인해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차 우리 사회는 국방비 축소 압력과 함께 군 운영의 효율화를 매우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의 경제·기술, 특히 정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이러한 민수·상업적 능력에 적극 편승, 활용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방위력을 창출 할 수 있고, 국방비의 생산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국민이 이러한 「21 정보·기술군」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후원해 주도록 군 스스로도 논리체계를 설득력있게 발전 시켜야 하겠지만, 사회지도층

(정치권, 언론, 학계, 기업 등)이 군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군을 이해하고 후원하는데 소극적이면 군이 어떻게 발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대전환기에 처하여 이처럼 매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 학회는 이러한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일조하기 위해서 금년에 명칭을 「한국 군사 운영 분석 학회」에서 「한국 국방 경영 분석 학회」(MORS-K)로 개명하고, 8개의 개방형 연구회를 설치했습니다. 8개 연구회는, ① 동북아 군사력 분석 연구회, ② 디지털 전장 연구회, ③ 시스템 분석 연구회, ④ D-i net 연구회, ⑤ 국방 M&S연구회, ⑥ 국방지식경영연구회, ⑦ 군-사회 패러다임 연구회, ⑧ 방산 혁신 연구회로써, 연구회의 명칭만 보아도 당 학회가 우리군의 정보화·과학화·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의 현실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 학회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학문적 접근에 의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개발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산·학·연·군이 자리를 함께 하는 국내 유일한 학술모임이란 점입니다. 대 격변기에 우리 군이 풀어야 할 허다한 문제들, 특히 싸우는 방법 및 수단과 국방을 운영하는 기본 패러다임을 정보·지식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해서 선진 일류의 정보·기술 군을 창출하고 운영하는 중대한 과제는 군과 산·학·연이 머리를 함께 마주하고 다학문적·다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학회의 군-사회간 「연결자」 내지 「매개자」, 그리고 「시스템 통합자」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은 「무적공군」으로서 우리의 영광을 확실하게 방위해 왔으며, 이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21C 미래를 지향한 「전략공군」의 모습을 구상·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하늘로! 우주로!」로 계속 성장·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우리의 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먼 거리를 마다 않으시고 왕립 해주신 남궁 석의원님께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해주실 공군과 학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애쓰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